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2년도 제34호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칼럼

**헤어질 결심** (제5차 학교체육통합 세미나 발제문)

정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 서강대학교 교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학내 운동부 인권침해, 폭력·통제적인 문화비롯..개선 조치해야”**

차현진 MBC뉴스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현 고1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학폭’ 땀 감점**

김유나 세계일보 기자

### 대한체육회 공식입장발표

**대한체육회 “문체부의 ‘혁신위 학생선수 권고 개선책’ 적극 지지”**

전영지 스포츠조선 기자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대입 진학 온라인 설명회 진행**

좌승훈 스포츠서울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헤어질 결심

정반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서강대학교 교수

마침내, 오랫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눌러오던 답답함과 결별을 고하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체육계를 짓누르던 단어, 학교운동부.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학교 안에서 가장 반교육적 모습으로 기생하며 어린 선수들의 미래를 담보로 당장 움켜쥐고픈 경기성적을 위해 혹사와 폭력이 일상이 되게 만든 법적 근거. 체육특기자제도. 이들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박찬욱 감독의 근작 <헤어질 결심>에서 여주인공 탕 웨이가 알려 줬듯이 하나의 사랑이 끝났을 때 다른 사랑이 마침내 시작되기 때문이겠지요.

늘 준비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세미나에 발제자라는 플레이어로 뛰겠다는 약속을 던지고 많이 후회했습니다(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운동권(이 말을 처음 들었는데 80년대 학생운동을 떠올렸습니다만)이라는 기괴하게 왜곡된 개념이 남발되는 현실에 대한 깊은 박침입니다. 여기저기서 마치 학습권의 대응하는 권리인 양 회자되는 이 앙상한 개념의 저의를 낱알이 밝혀 더 이상 이런 세계인권 역사상 유래가 없는 운동권이라는 단어를 공론장에서 뿌리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 체육교사모임을 시작한 이병호 선배의 질타도 한몫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이런 연구 안하고 뭐하냐는 궁시령을 더 이상 견딜 도리가 없었지요(속으로는 형, 제 전공은 스포츠심리학입니다라고 되뇌었습니다만).

운동권. 얼핏 들으면 운동할 권리로 읽힙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시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몸을 다루고 더 나은/많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 인간 생명의 본질이 움직임이라면 삶의 여러 단계에서 위축되지 않고 마음껏 운동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 제가 운동권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이 단어를 접하고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운동권을 보장하라는 게 왜 문제냐? 체육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문을 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운동권'이라는 단어는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게 되는 특별한 집단, 학교운동부에 속한 학생선수들에게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무시한 채 마음껏 훈련과 시합출전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억지 주장입니다.

한겨레 김양희 기자의 최근 기사 <14세살 Wimbleton 우승자는 왜 등교를 포기했나>를 인용해 보지요.

“조세혁의 아버지인 조성규 전북테니스협회 전무이사는 1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외 경기 일정을 고려하면 도저히 학교 수업일수를 맞출 수가 없었다”고 했다. 학교장 허가 아래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는 올해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면 2023년에는 중학교도 0일로 줄어든다. 때문에 일부 선수들은 학교를 관두느냐, 운동을 관두느냐의 선택 기로에 서 있다. 조세혁처럼 어릴 적부터 국제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경우 고민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조세혁은 Wimbleton을 비롯한 유럽 대회 출전으로 한 달 가까이 국외에 있었다.”

...

“‘학생 선수’도 학생이 맞다. 하지만 ‘학생’과 ‘선수’의 갈림길을 만들고 선택을 강요하는 게 과연 합리적 방향일까. 스포츠 정책의 이상과 현장의 현실 사이 간극 때문에 ‘학생’이라는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볼 시점이다.”

마치 출석인정 결석일수가 줄어서 재능있는 어린 선수가 부당하게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 3월부터 해외에 체류하면서 1학기 내내 국제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생에게 학교는 어떤 일을 해줘야 할까요? 출석인정 결석일수를 90일쯤으로 늘이고 오랜 해외경기를 마치고 귀국하면 교문에 플래카드라도 달고 ‘장하다 대한건아!’를 외쳐야 할까요? 언론은 벌써부터 이형택, 정현, 권순우의 뒤를 잇는 차세대 테니스 스타가 탄생했다고 설레발을 칩니다. 주니어 시절 세계랭킹을 올리면서 두각을 보였던 수많은 어린 선수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이런 기대와 설레발이 어린 선수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스포츠심리학을 전공한 저는 현장에서 자주 목도합니다. 독일에서 우승을 했다고 제2의 손흥민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대중들이 환호합니다. 조세혁 선수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경기 결과에 따라 찬사와 질타를 받는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에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외부의 관심에 흔들리지 않을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계속




헤어질 결심 말고도 최근에 테니스 영화 두 편을 봤는데요. 하나는 윌 스미스(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크리스 락의 야구창을 날려 화제가 되었던)가 세계적인 여성테니스 스타 비너스 윌리엄스와 세레나 윌리엄스의 아버지로 나오는 <킹 리처드>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 <브레이킹 포인트>입니다. 영화 <킹 리처드>에서는 백인위주의 스포츠인 테니스에서 살아남기 위해 흑인인 자신의 딸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당시 미국 주니어 엘리트 테니스계에서는 성공 공식처럼 여겨지던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시키지 않습니다. 유명코치를 찾아 플로리다로 온 가족이 이사해서 본격적인 전문선수 훈련을 받게 하면서도 동시에 딸들의 학교 과제와 성적에 집착합니다.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비너스 윌리엄스에게 시합을 해야 실력이 늘고 그래야 큰 스폰서의 눈에 띄다며 설득하는 코치의 말을 단호한 거절하지요. 아직 이 아이들은 어리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반교육적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환경에 자신의 딸들이 둘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바로 토너먼트에 나가면 단번에 우승을 하고 세상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실력을 가졌음에도 아버지 리처드는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심지어 비너스 윌리엄스가 아버지에게 시합에 나가게 해달라고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14살 테니스 신동의 아버지와는 사뭇 다른 관점입니다(물론 현실 아빠 리처드 윌리엄스의 폭압적인 양육방식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 남자테니스계의 어린 신동 마디 피시의 다큐멘터리 <브레이킹 포인트>는 윌리엄스 자매와는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미 코너스, 존 메켄로, 짐 쿠리어, 안드레 아가시, 그리고 피트 샘프라스까지 미국 남자 테니스는 꽤 오랫동안 세계 테니스계를 지배합니다. 미국의 대중이 열광했던 것은 물론이고요. 17세 앤디 라딕이 가공한 서비스를 앞세워 US 오픈에서 우승했을 때 사람들은 차세대 미국 테니스를 짊어지고 갈 스타가 탄생했다고 흥분합니다. 그 때 앤디 라딕의 훈련 파트너였던 선수가 마디 피시입니다. 꽤 잘 하는 선수였는데요. 15살(중 3입니다)에 자신의 부모를 떠나 플로리다에 사는 로딕 집안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서로에게 최고의 훈련 파트너로 군인 출신이었던 라딕의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과 최고의 선수를 길러내는 아카데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시 미국 주니어 테니스 랭킹 1, 2위로 성장합니다. 첫 프로 데뷔 토너먼트 결승에서 라딕과 붙은 마디는 매치 포인트를 두 개나 따고도 너무 많은 생각 탓에 어처구니없게도 라딕에게 첫 번째 우승을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커리어 내내 프로선수가 된 것만으로 행복한 그저 그런 선수로 28살까지 살아갑니다. 앤디 라딕도 당시 등장한 세계 테니스계의 빅 3,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에 눌러 미국민의 엄청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힘든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요. 마디가 28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선수생활을 마감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독하게 훈련을 해 13킬로를 감량하고 그 해 세계랭킹 7위까지(그 과정에서 페더러, 나달, 라딕을 모두 이기는 기업을 포함합니다) 오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한 프로테니스 선수의 인생역전 드라마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 해 마디는 US 오픈 8강전에서 페더러와의 경기를 앞두고 (그 대회를 마지막으로 앤디 라딕이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미국 선수였습니다) 경기장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기권을 합니다. 그리고 약 2년간 은둔생활을 하지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마디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불안증세가 일종의 질병임을 알게 되고 약물과 상담을 통해 서서히 회복합니다. 2년 후 다시 2012년 US 오픈에 참가하면서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이 중증불안장애를 겪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당시 큰 충격이었는데요. 수많은 프로테니스 선수들이 자신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용기를 내줘서 너무 고맙다는 응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까지도 버리고 테니스계에서의 성공을 향해 인생을 불태우던 마디 피시는 결국 미국 테니스 랭킹 1위가 되지만 정상이 주는 압박에 불안장애를 겪고 벼랑 끝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용기있는 고백으로 세상에 다시 나왔지만 현재 세계 프로 스포츠계가 얼마나 잔인한 압박의 세계인지 그리고 그 환경이 얼마나 어린 선수들에게 해로운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의 두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국에 나타난 테니스 신동을 돌아봅니다. 앤디 라딕과 마디 피시는 경쟁을 하면서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가 되기 위해 젊은 시절을 불태웁니다. 그렇게 촉망받던 두 젊은이는 미국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은퇴를 결심하게 되지요. 그들이 가장 운동을 많이 하던 시절에도 사립 학교를 가 수업을 듣고 코트로 뛰어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체육특기자제도, 학교운동부가 없는 나라에서는(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출석인정 결석일수를 인정해달라고, 현실과 괴리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정상이 아닌 것이 어른들에 의해 마치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왜곡되고 그 허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린 선수들이 부서졌는지? 그 과정에서 그들이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불필요한 경쟁과 과도한 훈련들. 어린 선수들의 미래를 자기들끼리 미리 단정짓고 운동 아니면 뭘 하겠냐고 다그치면서 네가 다 잘되라고 그랬다는 변명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요? 과거의 대단한 선수들의 얼굴이 주르륵 떠오릅니다. 그들의 땀, 노력, 그리고 승리의 환희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학교운동부, 체육특기자제도는 이 땅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헤어지겠습니다. 단호히!

끝.



# 인권위 “학내 운동부 인권침해, 폭력·통제적인 문화 비롯.. 개선 조치해야”

대학 운동부의 폭력적이고, 통제적인 내부 문화를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이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재작년,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9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작년 3월 대한체육회장과 조사 대상 대학교 총장 등에게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장은 작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선수에 대한 괴롭힘' 항목을 신설하고, 올해 1월에는 괴롭힘 피해자의 범위를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등 여전히 위계 문화에 속해 있는 대상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조사 대상 9개 대학교 중 8개 대학도 학내 인권침해 구제기구에서 폭력적인 내부 문화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이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운동부의 엄격한 위계 문화에서 비롯된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학교 운동부의 폭력적인 내부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 고1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학폭' 맨 감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는 체육특기자 전형 응시 시 감점을 받을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교과 성적, 출석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반영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은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하면 감점을 받거나 응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의 연장 선상이다. 당시 교육부 등은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또 각 대학의 '만학도 특별전형' 기준을 '입학연도 3월1일 기준 만 30세 이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차등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 취지를 고려,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간 상이했던 기준을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체육회 “문체부의 ‘혁신위 학생선수 권고 개선책’ 적극 지지” [공식발표]

##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 재검토 및 개선책 마련 발표에 적극 지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 중 현실과 동떨어진 학생 선수 대회참가 관련 제도 보완 개선’ 발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권고 가운데 선수 인권 보호, 지도자 처우 개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인권이 보장된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현장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함에 따라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체육인 대상 교육센터 설립 등을 추진 중이며, 학생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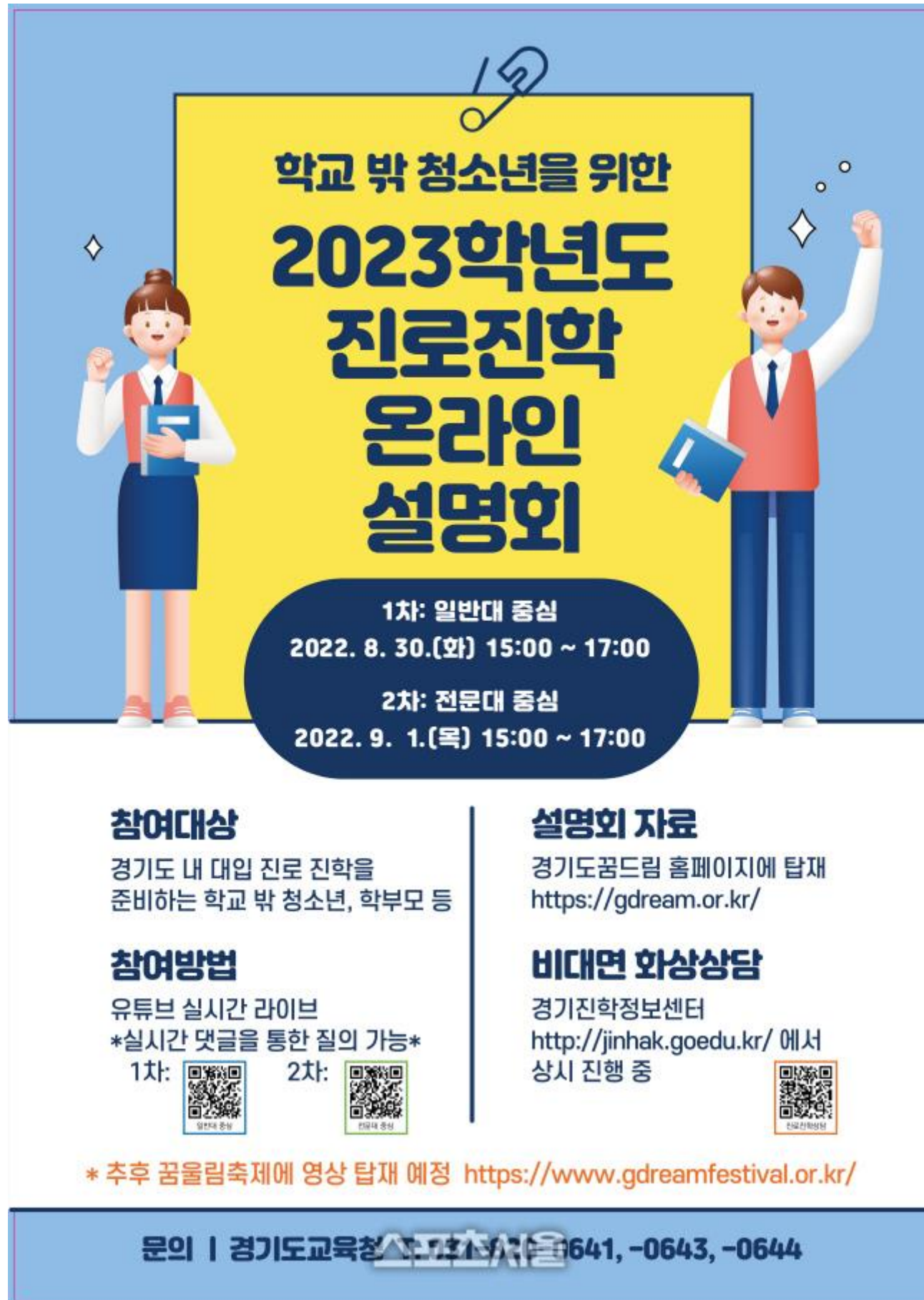
다만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구조개편, 대한체육회-KOC 분리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위 권고는 학생선수, 학부모, 체육단체 등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추진된 바 있다.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 중 학생 선수 대회참가 관련 제도 보완 개선' 발표에 적극 지지의 입장을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권고 가운데 선수 인권 보호, 지도자 처우 개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인권이 보장된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다만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구조개편, 대한체육회-KOC 분리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위 권고는 학생선수, 학부모, 체육단체 등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추진됐다'면서 '지난 4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발표했고,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부와 함께 스포츠혁신위 권고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보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권고안 일부 재검토 및 개선책 마련에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함께 현장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대입 진학 온라인 설명회 진행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2023학년도  
진로진학  
온라인  
설명회**

1차: 일반대 중심  
2022. 8. 30.(화) 15:00 ~ 17:00


2차: 전문대 중심  
2022. 9. 1.(목) 15:00 ~ 17:00

**참여대상**  
경기도 내 대입 진로 진학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등


**참여방법**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실시간 댓글을 통한 질의 가능\*

1차:  2차: 

**설명회 자료**  
경기도꿈드림 홈페이지에 탑재  
<https://gdream.or.kr/>

**비대면 화상상담**  
경기진학정보센터  
<http://jinhak.goedu.kr/> 에서  
상시 진행 중 

\* 추후 꿈올림축제에 영상 탑재 예정 <https://www.gdreamfestival.or.kr/>

문의 | 경기도교육청  0641, -0643, -0644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대입 진학 설명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30일은 일반대학, 다음 달 1일은 전문대학 진로 진학을 주제로 당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질의할 수 있다. 30일은 [youtu.be/fDWyWrtTMFg](https://youtu.be/fDWyWrtTMFg), 1일은 [youtu.be/MvCn-uPXWBk](https://youtu.be/MvCn-uPXWBk)로 접속하면 된다.

설명회 이후 개별 상담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은 경기진학정보센터 누리집 진로진학상담에서 화상 상담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상담과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꿈올림축제 누리집에서 설명회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관련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학생 운동선수들, 평일 대회도 참가 가능해진다

<https://www.mk.co.kr/news/sports/view/2022/08/763273/>

서산시, 다목적 팔봉국민체육센터 41억 투입해 건립

<https://www.news1.kr/articles/4786322>

남해군, 2023년 생활체육시설 기금사업 공모 100% 선정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9\\_0001993714&cID=10812&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9_0001993714&cID=10812&pID=10800)

대한체육회 '올림픽데이런 2022' 10월 16일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9091700007?input=1195m>

1400만 도민의 축제 '경기도체육대회 폐회'...1부 수원·2부 의왕 우승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8\\_0001993025&cID=14001&pID=140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8_0001993025&cID=14001&pID=14000)

문체부 생활체육 지원...울산 18개 사업 선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3548&ref=A>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쑥쑥”전남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성료

<http://news.tf.co.kr/read/national/1961402.htm>

추석연휴 '부천 체육시설 휴관' 동호인 반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829580115>

의정부 활기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저류지 활용'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829580120>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